

Sermon Notes:

서론: 오늘날을 어떻게 보는가?

본론:

1. 헬라어의 두 가지 ‘때’
 - 가. 크로노스: 순서적으로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
 - 나. 카이로스: 특성을 가진 개념의 때 -> 계절, 재림
2. 당시의 상황을 보고 사도는 말세의 징조로 여겼음
 - 가. 자다가 깰 때 -> 지금까지 자고 있다는 말 (영적)
 - 나. 구원이 더 가까이 왔음 -> 재림과 구원의 완성의 때
3. 영적으로 타락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
 - 가.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.
밤 vs 낮 ->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-> 빛의 자녀인 성도
 - 나. 어두움의 옷을 벗으라.
단정한 삶: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늘 구별된 삶
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기: 방탕, 술취함, 음란, 호색
대인관계 회복: 쟁투, 시기 ->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감
 - 다. 빛의 갑옷을 입으라.
영적 전쟁 -> 하나님의 전신갑주 (엡 6 장), 요 1:5,10,11

결론: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, 영적으로 깨어 진리를 추구하며, 어두움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십시다.

암송구절: 로마서 13장 12절

‘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’

Memo/Reflection:

1. 지금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는가?
2.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?
3.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?